코로나에 집밥 느는데… 장바구니 물가 부담되네

된장국 끓이는 데 드는 비용 1만8700원 … 전년비 5200원 올라

한파·폭설에 출하량 줄어든 대파값 75% 급등…양파 80% ↑
AI에 달걀값도 '껑충'… 쌀·사과·쇠고기 등도 두자릿수 올라

코로나19 여파로 삼시세끼를 '집밥'으로 해결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주요 농산물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출하량은 급감하고, 저장비용은 크게 오르며 농민들의 '삼중고'는 더해지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소매 가격을 바탕으로 된장국을 끓이는 데 드는 비용을 1년 전과 비교해보니 1만3500원에서 1만8700원으로 무려 38.5%(5200원) 급증했다.

비교 대상이 된 농산물은 시금치, 깐마늘, 양파, 대파 각 1㎏이다. 된장 등 각종 조미료는 제외했다.

이날 기준 시금치 1㎏ 가격은 4500원으로, 1년 전(4000원) 보다 12.5%(500원) 올랐다. 깐마늘 1㎏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33.3%(2000원)이나 올랐다.

양파와 대파 가격은 각각 80.0%, 75.0% 급등했다. 1500원 하던 양파 1㎏ 가격은 2700원으로 뛰었고, 대파 1㎏도 3500원으로 1년 새 1500원 올랐다.

수 주째 지속되고 있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대파 생육 여건이 악화되고, 양파의 경우 오래 저장하면서 드는 비용과 닳는 비율(감모율)이 증가했다고 aT 측은 설명했다.

기자가 12일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니 1만원 가지고는 국거리를 변변하게 장만하기가 힘들었다.

제철 맞은 시금치 1봉(250g·2480원)와 햇양파 1봉(1.8㎏·4280원), 흙대파 1봉(1㎏·3480원) 등 3가지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고 나니 가격은 이미 1만240원이 돼있었다.

달걀 한 판(특란·30개) 가격은 5980원으로, 6000원 선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양동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달걀 한 판도 5530원으로 1년 전 4200원보다 무려 31.7%(1330원) 뛰었다. 2주 전보다는 12.9%(630원) 오른 가격이다.

aT 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한동안 출하 회복이 어려워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T 광주전남본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전보다 가격이 '두 자릿수' 오른 품목은 쌀(11.8%), 상추(12.5%), 사과(75.0%), 배(50.0%), 감귤(20.0%), 쇠고기(한우 등심 1등급 100g·13.3%), 삼겹살(100g·13.5%) 등이 있었다.

건고추(100g) 가격은 80.0% 뛰면서 고춧가루 1㎏ 가격도 2만2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0% 급등했다.

한편 지난 달 광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4% 오르며 '0%대' 물가상승률을 2년 연속 이어갔지만, 농축수산물은 11.9% 뛰었다.

aT 관계자는 "한파특보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단기간 출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동절기 추운날씨에 따른 생육장애 등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무, 대파 등 채소류 대부분이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된장국 재료비용 1년 전과 비교해보니

〈단위:1㎏·원〉

품목	1월12일	1년 전	상승률(%)
시금치	4500	4000	12.5
깐마늘	8000	6000	33.3
양파	2700	1500	80.0
대파	3500	2000	75.0
합계	1만8700	1만3500	38.5(5200원)

※양동시장 소매가 기준 〈자료:aT 광주전남본부〉

12일 오전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1만원을 가지고 장을 보니 양파, 시금치, 대파 3가지 품목을 겨우 고를 수 있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25.95 (-22.50)
↓	코스닥	973.72 (-2.91)
↑	금리 (국고채 3년)	0.976 (+0.007)
↑	환율 (USD)	1099.90 (+2.60)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자금 확대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기업의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청년창업가의 사업계획을 공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사업화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정부정책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자금 지원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로, 그 외는 1억원까지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금리는 2.0% 고정금리다.

지원절차는 자금신청·접수, 사전 멘토링,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공개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화 멘토링, 대출, 사후 연계지원 순이다.

중진공은 올해 약 1700여개사에 1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2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8층 생활전문관에서 노트북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온라인 수업·재택 근무 증가에 노트북 잘 나간다

광주신세계 할인행사 마련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졸업·입학 축하 분위기는 주춤하지만 일부 관련 시장은 대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노트북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늘면서 필수품인 노트북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주신세계는 올해 졸업과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노트북 할인전과 행사를 마련했다.

8층 생활전문관에 자리한 삼성전자는 노트북 신제품을 사면 무선 이어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펼친다. 한컴 오피스 패키지 제공, 콘텐츠 최대 1년 무료 사용 등 혜택도 있다.

새 노트북을 살 때 쓰던 노트북을 반납하면 중고가를 매겨 보상해주는 '노트북 보상 원정대'도 운영하고 있다.

제조사나 노트북 사양에 따라 보상 가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장난 노트북도 최저 1만원 보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외국인투자 불모지? 도착금액 3년 연속 최저

지난해 400만 달러 그쳐…5년새 800만달러 줄어

광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금액이 3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광주 400만달러·전남 9800만달러, 전체(110억9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04%, 0.9%로 집계됐다.

지역 투자 도착금액은 1년 전보다 광주는 200만달러(-33.3%) 감소하고, 전남은 3800만달러(63.3%) 증가했다. 광주지역 투자 도착금액은 1200만달러(2015년)→1300만달러(2016년)→800만달러(2017년)→600만달러(2018년)→600만달러(2019년)→400만달러(2020년) 등 4년째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7년까지 광주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착금액이 적었지만, 2018년 세종에 800만달러 뒤지면서 꼴찌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서울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68억5900만달러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6억7500만달러), 울산(4억9100만달러), 제주(3억9600만달러), 부산(3억2200만달러), 충남(2억9400만달러), 인천(1억5500만달러), 경남(1억2300만달러), 전남(98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광주는 11.3배(1033.3%), 전남은 2.6배(164.4%) 급증했다.

지난해 투자유치 신고금액은 광주 6800만달러(15건), 전남 1억5600만달러(32건)로 집계됐다. 전국 신고금액 대비 비중은 광주 0.3%, 전남 0.8%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관행·위법 집중 점검

농식품부, 광주 각화·서부시장 등

광주 각화동과 매월동 농산물도매시장 2곳을 포함한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이 거래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3월 말까지 공영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도매시장 거래실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업무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개선 조치를 해왔다.

이번에는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공영 도매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적·공적 연금정보 한눈에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12일 통합연금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포털은 사적·공적 연금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회사별·연금상품별 비교공시, 연금통계 등 12종의 연금정보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직접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금감원 앱에서도 만날 수 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개발용으로 공개하는 인터페이스) 메뉴도 신설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